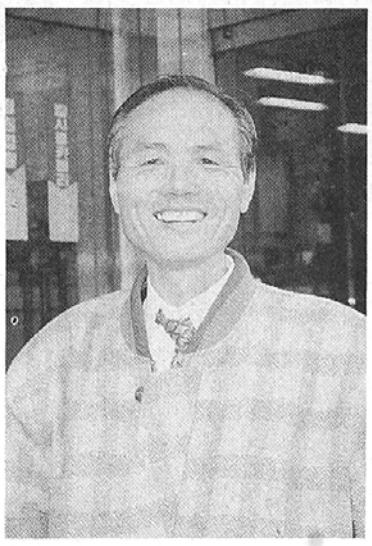
"부모님께 문안 올리듯 매일 천원씩 양로원에"

대전우체국 조환진 거사 보시행



노태우 전 대통령의 5천억 비자금 조성 사건은 우리사회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 사건이었다. 뇌물로 인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돈가치에 크게 혼돈을 가져 왔다. 매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오는 지도층의 수백억, 수천억의 검은 돈은 일반 보통사람들에게까지 1억, 2억은 우습게 아는 어처구니없는 사회괴리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1억원의 가치가 길거리에 나뒹구는 낙엽보다도 못하게 느껴지는 요즘 '보통사람' 조환진거사(57, 대전우체국 근무)의 '매일 1천원 보시행'은 오히려 고귀하고 신선한 충격을 준다.

"돈 1천원 보내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단지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한 것뿐입니다."

대단한 일도 아니라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는 조거사는 쑥스러운 듯 유난히 쾌청한 창밖 하늘로 시선을 돌린다.

매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대전우체국 우편 집배부에 출근, 온라인을 통해 1천원을 송금하는 일로 조환진 거사의 하루는 시작된다. 11살때 6·25로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게 자랐다는 조거사는 "하루 한번 부모님께 문안인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매일 1천원을 연꽃마을 노인들을 위해 송금한다"며 이 일을 시작하게된 동기를 설명했다.

조거사의 이러한 '작은보시 큰 기쁨' 인연은 이미 5년전부터 지어졌다. 매달 월급을 타면 맨 먼저 연꽃마을에 1만원의 후원금을 따로 보낸다. 당시 1구좌 1천원인 연꽃마을 후원회원에 3구좌를 가입한 조거사는 그후 5구좌, 10구좌로 후원계좌를 늘여왔던 것.

이렇게 매월 1만원씩 보내다 3년전부터 매일 1천원씩 더 보내고 있다. 일요일·공휴일이면 미리 전날 보낸다.

"불우노인 전생 부모일수도"…3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송금

이런 조거사의 보시행은 온라인 담당 직장동료까지 연꽃마을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주위까지 맑히고 있다.

매일 1천원 보내는 것이 귀찮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실 1천원이 뭐 그리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쉽게 송금할 수 있는 위치여서 지금껏 계속 해오고 있을 따름입니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남보다 조금더 일하는 것, 남보다 조금더 참는 것이 바로 남을 돕는 일'이라는 것이 그의 생활신조다.

"내년이 정년이지요. 하지만 공무원법에 건강한 사람은 3년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어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입니다. 한번도 큰 병 치르지 않고 여태껏 살아온 것도 다 부처님 은덕 아니겠습니까."

조환진거사는 환갑을 요란한 잔치 대신에 연꽃마을 용인양로원을 찾아 노인들과 점심공양을 하며 함께 보낼 계획을 벌써부터 세워놓고 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양로원의 모든 노인들은 어쩌면 전생의 제 부모님일 수도 있지요. 단돈 1천원으로 할 수 있는 효도, 이것말고 또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조환진 거사.

그는 땀흘려 번 돈의 소중한 가치와 마땅히 써야 할 곳을 아는 '진짜 보통사람'이다.

대전=이은자 기자

15일 열반한 서운스님

"삼독으로 화탕지옥서 한평생 이제 몸버리고 고향 돌아가니"

지난 15일 직지사에서 향년 92세 법랍 45세로 입적한 조계종 원로회의 명예의원인 전등사 조실 서운스님은 3차례에 걸쳐 총무원장을 역임하는등 종단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섰다.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서운스님은 일제시대에 공무원생활을 시작, 전매서장을 역임하면서 독립운동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노장사상과 칸트 헤겔등 근대 서양철학을 두루 섭렵한 스님은 "내가 갈곳은 부처님 경전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평소생활의 절반을 절에서 보냈다.

총무원장 3차례 역임 조계종 기틀 다져

50년 마곡사에서 제산화상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52년 파계사 수선 안거이래 전국의 유명선방을 찾아 30안거를 마쳤다.

60년 조계종총무원장을 역임한 스님은 62년 비상종단에 총무원장 직무대리, 83년 총무원장취임등 3차례에 걸쳐 종단의 중책을 맡아 한국불교의 중흥과 조계종의 기틀을 세우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

80년 강화 전등사 조실로 추대된 스님은 줄곧 전등사에 주석하면서 선지를 폈다. 스님은 열반에 앞서 "오늘 가버릴까"며 입적의 여유를 보이다가 15일 직지사 서별당에서 상좌들에게 다음과 같은 임종게를 남기고 입적했다.

서운스님 열반송

無形扣地卽有靈 (무형고지즉유령)
형상이 없지만 두드리면 곧 신령스러움이 있고
三毒火湯過平生 (삼독화탕과평생)
삼독의 화탕지옥에서 한평생을 지냈다
脫却體路還本鄕 (탈각체로환본향)
이제 몸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寒月空山屬眞人 (한월공산속진인)
차가운 달 빈산이 진리의 몸이로다

능인사회복지관 24일 개관

착공 4년만에 회향…노인병원등 각종 편의시설 갖춰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를 담당하게될 동양 최대의 복지시설을 불교계가 건립했다.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원장 지광스님)은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지하5층 지상3층 연건평 3천6백평규모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오는 24일 개관법회를 봉행한다. <관련인터뷰 7면>

3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쌍계사주지 고산스님을 비롯 대덕스님과 지역기관장 사회복지관계자 재가신도들이 참석하며 인간문화재 동희스님 일행의 범패가 펼쳐진다.

능인복지관불사를 진두지휘한 지광스님은 개관에 앞서 "불교의 자비행을 사회복지로 연결시켜 깨달음의 사회화를 이루고자 복지관을 건립하게 됐다"며 "7만명의 능인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혼신의 힘으로 마침내 복지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92년 착공이래 4년만에 완공되는 능인복지관은 지상 1층에 유치원 탁아실 노인병원, 2층 문화교양교실, 3층 독서실 선방등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지하 1층은 상담실 방송실 사무실 2층은 동시에 3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교육실로 꾸며져있다.

능인복지관은 앞으로 법회는 물론 가정·어린이·청소년·부녀·노인·장애인·지역사회 복지를 펼친다.

또한 능인복지관은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시설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능인복지관에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불교학교졸업자 가운데 1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8개부서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성철스님 2주기 추모재 봉행

12일 해인사, 사리탑건립 개토재도

퇴옹당 성철스님 2주기 추모제 및 사리탑 건립 개토제가 지난 12일 해인사 대적광전과 백련암에서 각각 봉행됐다.

성철스님 문도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법회는 혜암스님(해인사 방장)과 월주스님(총무원장)등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님의 행장소개, 육성법문 청취, 분향,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혜암스님은 "나고 나도 나지 않음이요, 죽고 죽어도 죽지 않음이니 생사가 일여(一如)"라고 법문했다.

이어 월주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의 올곧은 수행정신과 무소유의 청빈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지표가 되고 있다"며 "사부대중의 의식개혁으로 새로운 한국불교를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추모제에 앞서 해인사 백련암은 '성철스님 추모 참회법회' 회향식을 갖고 스님의 사리 1백여과를 모실 사리탑 건립 개토제를 봉행했다.

성철스님 문도회는 사리탑 건립외에도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시민선방 운영, 이웃돕기 자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준비위 결성

신도·직능대표등 7백명 참석…위원장에 한상범교수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지난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기인대회에는 조계종 25개 교구별 신도대표와 각 신행단체, 직능대표 7백여명이 참석했다. 발기인으로 참석한 신도 대표들은 신도회의 빠른 창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실무를 담당하게 될 준비위원장으로 한상범교수(동국대)를 선출했다. <관련인터뷰 4면>

준비위원회 규약통과와 함께 결성된 중앙신도회 준비위원회는 부위원장단으로 교구본사, 법조, 여성, 의료, 경제계로 나뉘어 구성하고 상임위원으로 29명을 선임했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16일 현재 교구본사 5백8명 신행단체·개별인사 3백43명등 총 8백51명이 발기인으로 등록했다.

정법회 거사림

창립 30년 기념법회

전국에서 처음으로 남자신도들로 조직된 정법 거사림회(회장 남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20일 대구 고려예식장에서 진제스님(동화사 조실)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전통사찰 종토세 삭감

黨政案 국회제출…교계 '비과세' 촉구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9일 용도에 따른 0.2~5%의 종합합산과세를 해 온 종교단체 소유의 비종교목적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택지세율을 0.3% 인하해 분리과세하며, 0.3~2%의 별도 합산과세를 해온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는 0.1%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조세감면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종토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등 현행 법규 취지에 큰 혼란이 생기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토세는 과표현실화에 따라 세금액이 크게 늘었을뿐 아니라 누진세까지 적용돼 교계는 이에 크게 부담을 느껴왔다.

그러므로 내무부와 민자당의 이같은 조처는 교계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30년 이상 사찰토지 비과세 요구와는 거리가 있어 교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어머니의 마음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코끝에 다가오자 애타는 母心들은 초겨울 추위도 아랑곳 않고 사찰을 찾아 부처님께 자녀의 합격을 기원했다. 관음재일이자 시험 일주일전인 지난 16일 전국 사암에는 합격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이 법당가득 모여 들었다.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고영배 기자〉

조계종 119회 종회

산중총회법 통과

종정감사 실시…법인관리·사면법등 차기로

본사 주지 및 총림방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이 제정됐다.

조계종 제 119회 정기중앙종회는 지난 17일 △비구계를 수지한 5년이상 경과 재적승 △교구관할 말사주지인 비구·비구니 등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회의 소집 본사주지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산중총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미의 관심을 모은 법인관리법 사면법 관탐료관리법(안)은 차기종회로 이월됐다.

한편 지난 9~11일에 실시됐던 집행부 각 부서에 대한 종정감사보고가 13~14일에 각각 실시됐다.

특히 '96 예산편성을 위한 실태파악위원회' 위원장 정휴스님은 △사찰의 수입·지출증빙자료 미흡 △사찰마다 장부양식 통일화 시급 △특별회계 장부·임대료 수입장부 미비△종단 3대 사업에 대한 예산 저조 등의 감사현황을 보고하고 이번 감사가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종회는 지난 6월 실시한 사면·복권이 미흡하다고 판단, 참석 종회의원의 만장일치로 집행부에 대해 사면단행 권고를 결의했다.

한편 종회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포교원장 정락스님의 사표를 수리했다.
〈11월17일 오전 현재〉

'21세기 선우모임' 창립

부산신행단체 결속

부산 불교계 신행단체 관계자들과 교계언론 종사자 등 80여 실무자들의 모임인 '21세기를 위한 선우모임(회장 이기표)'이 지난 12일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날 현 부산불교계에 대한 진단과 불교계 전반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어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특정인의 노선이나 사적인 주장을 배제하고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불교계의 열려있는 대화마당이 될 것임을 천명했다.

윤이상씨 장례식

13일 獨기독병원서 엄수

지난 4일 타계한 故윤이상씨의 장례식이 지난 13일 독일 베를린 기독병원에서 엄수됐다.

인천 용화사 환산스님의 집전으로 엄수된 장례식에는 고인의 유족과 친분이 두터웠던 동료음악가들이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고인의 동생 윤동화보살에 의하면 독일의 풍습에 따라 다음달 26~27일경 화장의식을 갖고 유해의 일부는 고국으로 이송해 고향인 통영 앞바다에 뿌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이용 교학수업 흥미" 94%

해동중학교 교학연구발표회서 밝혀

종립 해동중학교(교장 황운호)는 지난 10일 부산 해동중학교에서 전국 불교종립학교 교장과 교법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교육연합회 지정 제25회 교학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컴퓨터와 교학수업의 접맥을 시도해 자칫 고루하게 인식될 수도 있는 교학수업에 흥미를 갖도록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교화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교학 연구수업과 '불교교과 체계에 대한 제문제'란 논문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연구수업안내서에 따르면 해동중학교의 매년 졸업생 가운데 약 70%가 수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학년 6반 51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실태 분석에 따르면 교학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흥미있다(47%)' '그저 그렇다(45%)' '흥미없다(8%)' 순으로 나타났으나, 컴퓨터를 이용한 교학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흥미있다(94%)' '그저그렇다(4%)' '흥미없다(2%)'로 나타나 컴퓨터를 이용한 교학수업이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밖에 학생의 종교실태는 불교(49%) 기독교(24%) 천주교(8%) 무교(19%)순으로 나타났고, 학부모의 종교는 불교(42%) 기독교(21%) 천주교(10%) 무교(27%)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년원생 35명

15일 통도사서 수계

교도소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홍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가 거행됐다.

부산소년원에서 감화교육을 받고 있는 35명의 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수계법회는 목산스님(통도사 주지)을 전계사로 수계자 전원은 바른 깨달음을 향하여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수계법회는 통도사 자비원 사무국장 남명스님과 10여년전부터 교도소 포교에 힘써온 부산불교마야회(회장 최보림정) 회원들의 꾸준한 포교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가양복지관 '행정 마비'

친인척 중심 파행운영…서울시, 새 법인 모집공고

교계에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가양4 종합사회복지관이 파행운영과 서울시의 일방적인 운영권 회수 등으로 행정마비 상태에 빠졌다.

가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설웅스님)은 지난 13일 시청측에서 복지관 위탁운영자 교체를 들고 나서 일방적으로 국민일보(13일자18면)등에 복지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게재함으로써 복지관 행정이 마비상태에 봉착하게 됐다.

가양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월 사단법인 불교사회복지회가 위탁받아 전 서울시 의회의 원인 김순애씨에게 재위탁 운영토록 했는데 김순애씨는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파행운영을 계속해 갈씽을 빚어왔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사회복지회는 설웅스님을 관장으로 임명, 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5개월여의 행정공백끝에 지난 7일부터 정상업무에 들어갔으나 서울시가 사전통보도 없이 위탁운영 파기를 들고 나선 것.

시청측은 위탁운영체가 자율적으로 활동하지 못할 시에는 운영권을 해제할수 있다며 운영권박탈을 주장하며 타법인으로의 위탁을 유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불교사회복지회와 복지관 직원일동은 지난 14일 서울시청을 방문, 복지관의 정상운영을 촉구하는 동시에 위탁운영권 반납조치와 위탁법인 모집공고 취하 진정서를 민원실에 접수하고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불교사회복지회 한 관계자는 "시청측이 이미 천주교 단체를 위탁운영자로 내정해 놓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 복지관 위탁운영을 둘러싼 서울시의 행정집행 시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전화상담협 결성

상호교류·협력등 다짐

대구지역의 5개 전화상담기관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자비의 전화(대표 재원스님) 환경의 전화(대표 성타스님) 나눔의 전화(대표 최병용 신부) 생명의 전화(대표 정성덕) 여성의 전화(대표 조성희 장기순)등 5개 상담기관은 22일 오후 2시 대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대구지역 전화상담협의회 결성 창립기념식 및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지난 7월 첫모임을 가진후 그동안 여섯차례에 걸쳐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 끝에 결실을 보게된 협의회는 앞으로 연 1회이상 학술대회 개최 및 계몽활동, 유관단체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현대사회와 전화상담'의 기조발제에 이어 폭력, 종교, 환경문제등에 대한 각 단체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내달 9일 청소년 지도자대회

조계종, 포교현장 문제점·방향등 논의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청소년의 해'사업 준비를 위해 '한국불교 청소년지도자 대회'를 12월9일, 10일 양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한다.

전국 각 사찰과 학교 학생법회 지도법사, 청소년 단체 지도자, 지도교사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이번 대회는 청소년 포교현장의 문제점과 방향, 전국규모의 청소년 조직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청소년지도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포교원 연수국장 화암스님은 "청소년 포교의 성공여부가 미래불교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전제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청소년지도자들의 모임에 많은 참여가 있기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이번 청소년지도자대회에 이어 전국규모의 청소년단체를 창립, 내년 청소년의해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일 불교인권위 창립 6주년

양심수 석방등 인권개선 노력 '평가'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가 창립 6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인권법당 길상사에서 외부인사 초청강연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90년 12월 창립된 불교인권위는 그동안 각종 사회문제를 비롯해 양심수 석방등 인권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성명서만 열심히 내는 단체'라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불교인권위는 부산불교인권위를 비롯해 승려인권위, 현대불교연구소등 4개 산하단체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 단체의 활동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인권위조차도 "인적구성과 사업성격 재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인권위가 교계내의 인권단체로서보다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성명만이 아닌 교계내외에서 효응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사업실천이 필요하다"며 다른 시민운동단체나 종단과의 연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